

발행인: 노용균 200-710  
 편집인: 조세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길 1 (효자2동 192-1)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세연 교수 연구실내  
 발행일: 2005년 5월 24일 전화: (033) 250-8145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e-mail: sycho@kangwon.ac.kr

**1.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사용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소우 교수 (swchung@cc.sungshin.ac.kr)
-------	--

◆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들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심사료: 없음
- 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 전임 50,000원, 비전임 20,000원,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전임/비전임 150,000원
- 라텍 전환비: 20,000원

**2.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2005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는 250,000원입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계좌번호 012336-01-001683, 우체국)

**3. 2005년 5월 24일 현재 회비 납부 현황**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량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한국 IBM), 김용범(광운대), 김용환(양산대), 김종복(경희대), 김창익(호서대), 노용균(충남대), 류병래(충남대), 박병수(경희대), 시정곤(KAIST), 윤애선(부산대), 윤영은(이화여대), 윤희현(전남대), 이기용(고려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영현(조선대), 이예식(경북대), 이익환(연세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재현(충북대), 정찬(동서대), 조세연(강원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재웅(고려대),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울산대) 이상 39명

정회원: 염재일(홍익대), 유은정(서울대), 윤재학(경희대), 이정민(서울대), 이해운(한국외대), 조정민(순천대), 이은경(서울대), 이정미(서울대) 이상 8명

기관회원: 차후 공지

**4. 알림**

◆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 여름학술대회가 동국대학교(경주 캠퍼스)에서 2005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자연언어의 구조와 지식의 통합”이라는 주제로에 개최되며, 학술대회의 제반 사항을 위해서는 송민영 (동국대) 교수님께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부디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실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10쪽 이내의 발표 논문 또는 자료를 총무이사인 조세연 ([sycho@kangwon.ac.kr](mailto:sycho@kangwon.ac.kr)) 교수님에게 6월 4일까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술대회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희락 ([hrchae@hufs.ac.kr](mailto:hrchae@hufs.ac.kr)) 교수님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라오며, 학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언어정보학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한국언어정보학회의 월례논문 발표회

◆ 그간 한국언어정보학회에서는 학기별 월례회와 더불어 구구조/제약기반문법연구회 워크샵을 따로 이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 두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강 세션을 오전 일찍 제공하여 학문 후속 세대가 할 수 있는 석,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언어학을 좀더 친밀하게 느끼게 하며, 학회 소속 회원님들께는 상호간의 이론을 쉽게 상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본 연구회는 지난 3월과 4월에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비교적 성황리에 연구회를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연구회인 5월 연구회는 최혜원 교수님 (이화여대) 및 정찬 교수님 (동서대)께서 특강을 이끌어 주시고, 아래에 첨부한 바와 같이 저희 회원 두 분이 일반 발표를 그리고 류수린 (서울대, 독일 Erfurt대) 교수님께서 기획 논문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년 5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 한국어 부동사의 기능영역(Functional Domain of Korean Converbs)

류 수 린

서울대, 독일 Erfurt대

한국어에서 동사는 형태와 기능에 따라서 종결형, 접속형 (혹은 연결형) 그리고 부동사형 (converb, 혹은 연쇄동사 serial verb)으로 구분된다. 접속형 동사는 흔히 부사절과 같은 종속 접속절의 독립술어로 쓰이는 반면, 부동사는 그 형태에 있어서 ,용언+ 연결어미 -고/-어'의 접속형이지만 시제표지가 불가능하고 정형의 후행동사에 의존하여 나타난다. 이때 종속적으로 내포된 술어로서의 부동사는 논항구조의 제약과 통사적 지위의 격하 (downgrade of syntactic status)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사의 구분을 정형과 비정형의 이분법이 아닌, 연속선 상에 놓여 있는 점진적인 문법표지의 축약 (gradual reduction of grammatical markers)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형태론적 축약의 정도를 문장 접속의 여러 유형 (types of clause linkage)과 그 종속성의 정도 (grades of subordination)에 대응시켜 설명한다.

특히, 기능문법 (Dik 1978, 1997)과 언어유형학적 접근(Lehmann 1988, Kulikov & Heinz 1998, Schultze-Berndt & Himmelmann 2001)에 기반하여 접속문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한국어 부동사가 나타나는 ,주변부절 (periphery linkage, periphäre Anbindung)'의 통사적 지위와 기능 영역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어 부동사는 그 기능영역을 분석해 볼 때, 후행절 전체에 대한 부사적 종속절과 달리 (1) 참여자의 도입 (introduction of new participants)을 통한 후행 술어의 논항구조의 확장과 (2) 후행 술어의 양태적/부사적 부가(modification of main situation)에 관여한다.

이러한 한국어 부동사의 기능영역은 독일어나 영어에서 보이는 분사 (participles)류의 논항 부가어적인 기능과의 비교를 통해 각각 동사 부가 (verbal modification) 경향과 명사 부가 (nominal

modification) 경향으로 기술된다. 또한 이는 독일어나 영어에서 동사연쇄, 나아가 합성동사가 매우 드문 반면 한국어나 일본어 그밖에 다른 언어들에서는 동사연쇄가 문장의 접속이라는 통사적 차원과 동사합성이라는 어휘적 차원에서 매우 생산적이라는 대조적 현상을 설명 가능케 한다.

## ‘다시’ 의미 연구

류병래  
충남대학교

영어의 *again*이나 독일어의 *wieder* 가 쓰인 문장의 중의성 해소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최근 까지 언어학의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McCawley (1972), Dowty (1979), Fabricius-Hansen (1983), von Stechow (1996), Egg (1999), Fabricius-Hansen (2001), Huitink (2002), Blutner & Jäger (2003), Pittner (2003) 참고). 영어나 독일어에서처럼 ((1) 참고), 한국어에서도 ‘다시’가 쓰인 문장이 복원해석(restitutive reading)과 반복해석(repetitive reading) 두 가지를 허용한다 ((2) 참고).

John closed the window again.

- a. John again performed the action of closing the window. (a repetitive reading)
- b. John brought it about that again the window is closed. (a restitutive reading)

철수는 창문을 다시 닫았다.

- a. 철수는 창문을 닫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a repetitive reading)
- b. 철수는 창문을 (잠시 열어 두었다가) 닫혀 있는 상태로 복원하였다. (a restitutive reading)

다른 언어에서 ‘다시’에 해당하는 어휘의 중의적인 해석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다시’에 하나의 의미를 설정하고 중의성을 영역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Dowty (1979), von Stechow (1996), Pittner (2003) 등), 아예 ‘다시’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려는 시도로 나누어 진다 (Fabricius-Hansen (1983), Kamp & Roßdeutscher (1994), Blutner & Jäger (2003) 등). 독일어의 경우 *wieder*가 V2 앞에 나오는 정동사 앞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중장(middle field)의 맨 앞에 나오는지 여부, 강세의 위치 등을 실마리로 중의성을 해소한다. 한국어에는 독일어의 ‘위상적 장이론’ (topological field theory)에 해당하는 중의성 해소를 위한 통사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어휘적으로 독립적인 ‘또’를 부가적으로 쓰거나 아예 대치하여 중의성을 해소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또’가 쓰인 문장은 항상 반복해석만을 허용하고, 복합적으로 쓰인 ‘또 다시’도 역시 반복해석만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위 주장을 형식의미론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형식화하고 ‘다시’와 동사의 상 분류와의 연관성 및 전제(presupposition)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결과상태 수식과 부사어 분류

윤재학  
경희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의미/기능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부사 ‘다시’와 ‘또’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을 펴고자 한다. 이 차이 중에서 의미적 차이는 이들이 주어진 특정 사건에 대해 각각 개체동일적(token-identical) 사건과 유형동일적(type-identical) 사건에 대한 수식을 제공하는 어휘적 특성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들의 기능적 차이로서 ‘다시’는 결과상태를 수식할 수 있으나, ‘또’는 결과상태 수식이 불가능함을 관찰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결과상태에 대한 수식가능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해 본다. 이에 따라, Pustejovsky(1995)의 생성 어휘론의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려면, 현재의 사건구조 이론에 다소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중점하위사건구조(headed subevent structure)의 방식을 수정하여, 모든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결과상태가 중점(head)이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process)을 중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또’가 결과상태 수식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부사가 사건에 대해 반복적 수식을 하는 의미적 특성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사어수식의 차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ustejovsky식의 사건구조에 중점(head)의 차이에 의한 설명보다는 부사와 피수식 술어의 호환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술어에 무대성(stage-level)과 개체성(individual-level)을 구분하듯이 부사어에도 무대성 술어 수식 부사어와 개체성 술어 수식 부사어의 구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언어정보학회 2005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일사: 토요일 8:30-12:20**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월 26일 (토)	특강 I 8:30-9:50	최인철 (경북대) 채명희(조선이공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GPSG vs. HPSG	윤재학 (경희대)
	휴식(10분)			
	기획 논문 10:00-10:50	조정민(순천대)	A Morpho-syntactic Study of Predicate Topic Constructions in Korean	
	일반 논문 11:00-11:40 11:40-12:20	윤영은(이화여대) 염재일(홍익대)	The Interpretation of Bare Plurals ‘-거든’ 조건문의 제약과 의미	
4월 23일 (토)	특강 II 8:30-9:50	유은정(서울대) 정대호(한양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GB vs. HPSG	조세연 (강원대)
	휴식 (10분)			
	일반 논문 10:00-10:40	채희락(한국외대)	‘귀엽단다’의 중의성 분석	
	일반 논문 10:50-11:30 11:30-12:20	최재웅(고려대) 전종섭(한국외대)	한국어 데이터 베이스 의미론 구현 시론 부가어의 격표시: 개념의미론적 분석	
5월 28일 (토)	특강 III 8:30-9:50	최혜원(이화여대) 정찬 (동서대)	등위구문에 관한 접근법들: LFG vs. HPSG	유은정 (서울대)
	휴식(10분)			
	기획논문 10:00-10:50	류수린 (서울대, 독일 Erfurt대)	Functional Domain of Korean Converbs	
	일반논문 11:00-11:40 11:40-12:20	류병래(충남대) 윤재학(경희대)	‘다시’ 의미 연구 결과상태 수식과 부사어 분류	